

1인 가구 취향저격! 아삭한 꼬마당근 ‘미니홍’

김보화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064)760-7242

최근 1인가구가 급증하면서 소비가 간편한 미니채소가 각광받고 있다. 당근은 비타민A의 전구체인 카로틴이라는 물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B₁을 비롯한 소량의 비타민B₂와 비타민C가 들어 있는 건강 채소이다. 따라서, 바쁜 현대인들이 생식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미니당근 ‘미니홍’을 육성했다.



○ ‘미니홍’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품종육성을 위해 2007년부터 일본 및 네덜란드 등에서 도입한 여러 형태의 유전 자원들을 계통분리 하였다. 분리한 계통 집단 중에서 수량성이 높고 우수한 표현형을 보이는 제주 Ca-6호 계통을 선발하였고, 생산력 검정시험 결과 수확기의 특성이 안정적으로 발현하였으며, 소비자 기호도가 높고 생육특성이 우수하였다. 제주 Ca-6호는 작고 귀여운 당근이라는 뜻의 ‘미니홍’이라고 명명하여, 2018년에 품종보호출원하였다.

○ ‘미니홍’ 품종의 주요 특성

‘미니홍’은 제주 토질과 기후에 맞게 개발된 품종으로 생육기간이 80일로 짧다. 엽장은 32.5cm로 기존 5촌 당근보다 26.3cm 짧고, 뿌리 생육도 근장 13.4cm, 근중 55.8g, 근경 2.5cm로 작아 밀식재배가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 비교적 토양 양분이 적고 물빠짐이 좋은 사질토에서 상품성이 높다.

품종명	엽장 (cm)	엽수 (매)	근장 (cm)	근중 (g)	근경 (mm)	색도 (hue)*	당도 (°Bx)
미니홍	32.5	7.5	13.4	55.8	24.6	58.4	6.7
베이비(대비)	29.0	8.3	17.4	34.0	16.8	60.2	7.4

*숫자가 낮을수록 짙은 오렌지색임

○ ‘미니홍’ 품종 재배시 유의사항

제주도에서는 당근 파종 후 어린묘 시기에 태풍이 잦기 때문에 일반 5촌 당근의 경우, 밀식하여 파종 후 3회에 걸쳐 솟음 작업을 하되 최종 솟음시는 당근 간격이 15cm가 되도록 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미니당근인 ‘미니홍’의 경우, 3cm 정도의 간격만 유지해 주면 되므로,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면서 파종되는 기계 파종 시에는 파종 후 솟음 작업은 필요 없다. 단, 줄 뿌림 하는 경우에는 발아 후 본잎 2~3매 출현할 때, 3cm 간격으로 1회 솟아 주면 된다. 솟음 간격이 너무 넓으면 뿌리가 너무 비대해져 상품성이 낮아지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외관 및 단면 형태 좌. ‘베이비’(대비), 우. ‘미니홍’